

### 제39회 간호문학상 수상작

간호사신문이 주최한 제39회 간호문학상 수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간호문학상 공모에는 소설 10명, 수기 25명, 시 45명, 수필 31명 등 4개 부문에서 총 111명이 응모했다. 간호사 85명과 간호대학생 26명이 참여했다. 각 부문별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소설 및 수필부문 당선작은 수상자가 없다.

- ◇소설부문 △가작= '방정식'(김아현·동국대 3학년)
- ◇수기부문 △당선작= '내 마음의 깃발'(이명숙·보건

진료소장 퇴직) △가작= '당신의 일상 속 영웅은 누구인가요?'(송영관·미국 시카고 일리노이대 간호학 박사과정생)

- ◇시부문 △당선작= '모르는 일'(김경옥·동의의료원)
- △가작= '봄의 언어'(홍정미·경북 포항시)
- ◇수필부문 △가작= '죽음의 체험 앞에서'(오주훈·서울시) △가작= '토마토'(양세진·전북대 4학년)

수상작품은 간호사신문 홈페이지(www.nursesnews.co.kr)에서 볼 수 있다.

#### 수기 당선작 소감

### 33년간 믿어준 지역주민들께 감사



이명숙 (보건의료소장 퇴직)

저를 믿어준 주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누가 더 빨리 가느냐 보다 누가 더 오래 견디느냐가 결정하는데, 주민들이 저를 신뢰했기에 33년간 말뚝처럼 보건의료소를 지켰습니다. 지난밤 꿈엔 것 부임해서 살던 낡은 보건의료소가 보였습니다. 연탄아궁이가 부실해 가스냄새가 떠나지 않던 부엌이었는데, 연탄불이 빨갛게 타고 있었습니다. 꿈이 제게 행운이 되어 당선을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니다. 보건의료소장으로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제 삶을 성찰하고 글을 쓰게 해준 대한간호협회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소 초창기의 열악한 환경에서 피웠던 연탄불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꺼지지 않고 살아있는 꿈은 곧 것은,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제 영혼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제가 간호사로 성장했듯이 그 무엇으로 날마다 낙엽 한 장 만큼씩 성장하고픈 제 마음 속 소망의 랩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 시 당선작 소감

### 글로써 서로의 마음 나누는 계절



김경옥 (동의의료원)

오랜 기간의 미약한 습작들을 회원님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인정받음에 대한 신선한 기쁨으로 새삼 글 쓰는 일에 격려를 느낍니다.

가로수 길노란 은행잎의 여운의 낙하가 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의미를 주는 이즈음, 더 차분하게 그저 글로써 서로가 마음을 나누어도 좋을 듯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중에 일선의 여러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신 회원님들께 한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계획이 보람되시길 빌어 봅니다.

#### 심사평

##### — 소설·수기부문

##### (소설부문)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글쓰기, 신통하고 경이롭다. 특히 온전히 상상력이 보여주는 소설쓰기의 즐거움을 아는 이들의 글을 읽는 즐거움이 정말 즐겁다.

그러나 예년의 수준에 비해 다소 뒤진다는 아쉬움 속에서도 재능발견의 즐거움을 준 작품을 얻게 되어 기쁘다. 당선작 없이, 가작을 뽑았다.

- 가작 : 「방정식」(김아현)은 불행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불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 이야기 형식을 따져 행복과 불행의 척도를 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다소 관념적이고 설명적이긴 하지만 작품 발상을 높이 보아 선에 넣기로 했다. 선에는 들지 못했지만 「편지」(김지

### 간호사들의 글쓰기, 신통하고 경이롭다

수)도 입상작과 끝까지 겨룬 좋은 작품이었다는 것을 아쉬운 마음으로 전한다.

##### (수기부문)

읽은 작품 모두가 따뜻하면서도 냉철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쓴 글이라 읽는 즐거움이 컸다.

- 당선작 : 「내 마음의 깃발」(이명숙)은 '아픈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일하자'라는 좌우명으로 33년간 보건의료소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글쓴이가 보건의료소에 근무할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다. 퇴직하던 날 마음읽구까지 따라나와 전승하던 지역주민들의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 가작 : 「당신의 일상 속 영웅은 누구인가요?」(송영관)는 미국에서 간호

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남자간호사의 처지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일깨워 그 존엄한 가치를 새로이 하고자 하는 성심의 열의가 읽는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리라 믿는다.

정정화, 박재형, 서옥례, 이해정님의 글도 뽑힌 글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내용의 수기였다라는 것을 밝혀둔다.



전상국 작가/강원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 심사평

##### — 시·수필부문

### 순수한 열정에 참신한 기량이 더해지기를

「간호문학상」을 심사할 때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만나는 기쁨이다.

유명해지기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문학이 좋아서 글을 쓰는 자세, 글을 쓰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간호문학상」 심사에서 만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간호문학상을 심사할 때는 '신춘문예'처럼 문학으로 입신을 꿈꾸는 사람들의 작품을 심사할 때 느낄 수 없는 청량한 기분을 맛본다.

이번 '제39회 간호문학상'의 응모작들은 전반적으로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심사자가 접한 시와 수필 분야 작품 중 수상작이 될 만한 작품들은 쉽게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이 비슷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빼어난 기량을 보여주는 한 두 작품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번 '제39회 간호문학상'에서 당선작을 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작품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지 않았으나 참신한 기량을 보여주는 작품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심사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 (시 부문)

김경옥의 「모르는 일」을 당선작으로, 홍정미의 「봄의 언어」를 가작으로 뽑는다. 김경옥의 「모르는 일」을 당선

작으로 뽑은 것은 함께 보낸 다른 2편의 시작품까지 합쳐 3편 모두가 다른 사람의 응모작보다 뛰어난 까닭이다. 동시에 김경옥의 시가 구사하는 비유적 언어가 지닌 함축성은 개인적·추상적 측면이 강하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까닭이다.

당선작의 첫머리에 놓인 "서랍을 열다, 굳게 닫았다/내 혼돈의 활자들이 내지르며/활개칠까 두려웠다"에서 읽을 수 있는 시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의 감정 그리고 마무리에 놓인 "지키지 말아야 할 약속에도/길게 행복할 것 같다"는 구절에서 마주치는 시쓰기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에서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접할 수 있다.

가작으로 홍정미의 「봄의 언어」를 뽑은 것은 시어의 간결함 때문이다. 홍정미가 보낸 다른 2편의 시와는 달리 이 시에서는 설명적 언어들이 배제되고 필요한 언어만 남아 있다.

"나무는 그저/꽃으로 보여주었고 있었다"는 평범하지만 간결한 시구를 보면서 시의 언어는 설명적 언어가 아니라 함축적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주었으면 좋겠다.

##### (수필 부문)

오주훈의 「죽음의 체험 앞에서」와 양세진의 「토마토」를 공동 가작으로 뽑는다. 당선작 없이 2편의 가작만 뽑은 것

은 이 두 편이 당선작이 되기에는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주훈의 「죽음의 체험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글에서 볼 수 없는 독서의 경험과 사색의 깊이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주훈의 글은 사색의 열거로 흐르고 있어서 한 편의 짜임새 있는 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양세진의 「토마토」는 오주훈의 글처럼 깊이 있는 사색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글을 흥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짜임새에 있어서는 훨씬 뛰어나다.

아무쪼록 가작으로 뽑힌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심사자가 「간호문학상」에서 기대하는 참신한 기량은 능숙한 기량이 아니다. 다소 어설피고 부자연스러워도 사물을 새롭게 보는 눈길,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을 심사자는 기대한다. 그런 참신한 기량이 「간호문학상」을 「간호문학상」답게 만드는 힘인 것이다.



홍정선 문학평론가/인하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

## 30년 전통 대방열림고시학원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 2019년 간호사 국가시험 대비

OPEN

##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 오픈

대한간호협회 출판사에서 2019년도 간호사 국가시험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고사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능력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구성과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과목 : 간호사 국가시험 8개 과목

응시 방법 :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www.RNbook.or.kr)에서 응시

응시 비용 : 회당 5,000원 / 3회 세트 10,000원

문의 사항 : 대한간호협회 출판사 전 화 02)2260-2551 이메일 rnbook@koreanurse.or.kr

